벚꽃축제와 함께하는 자전거 라이딩

임실군, '옥정호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 4월 11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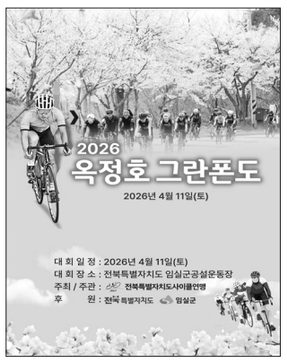
임실군이 벚꽃으로 둘러싸인 옥정호를 배경으로 자전거 라이딩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2026 옥정호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를 오는 4월 11일 '옥정호 벚꽃축제'와 연계해 개최한다.

옥정호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사이클연맹(회장 유정환)이 주최·주관하는 전국 최상위급 자전거대회로, 옥정호와 섬진강 일원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의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대회는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된 체류형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천만관광 임실'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회는 옥정호 벚꽃축제가 열리는 4월 11일 오전 8시, 임실종합경기장을 출발해 임실읍, 성수면, 덕치면, 운암면, 청웅면 등 주요 구간을 경유한 뒤 다시 임실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된다.

경기는 장거리코스인 '그란폰도'와 중거리코스인 '메디오폰도'로 나뉘어 운영된다.



'2026 옥정호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 포스터

'그란폰도'와 '메디오폰도'는 각각 긴 거리와 중간 거리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자전거 마라톤 형식으로 널리 개최되고 있다.

그란폰도 코스는 총 124km로, 임실종합경기장을 출발해 덕치 회문삼거리를 지나 정읍 산내면사무소, 운암 카페거리, 운암 소재지를 거쳐 다시 출발지인 임실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메디오폰도 코스는 총 72km로, 임실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해, 성수 조치삼거리, 장수 산서, 오수 상신촌, 삼계 학정, 덕치 회문삼거리, 청웅 모래재 등을 거쳐 출발지인 임실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비교적 짧은 거리지만 다양한 지형과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어 많은 라이더들의 호응이 예상된다.

특히, 라이딩 중 만나는 옥정호의 절경과 벚꽃이 장관을 이루는 가로수길은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군은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기 구간내 포트홀과 잔석제거 등 도로환경을 정비하고 있으며, 임실경찰서 및 임실군 자전거연맹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요 구간마다 교통 유도요원을 배치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귀농귀촌 증가세

정착 지원 정책 효과 '가시화'

순창군이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26년 2월 말 기준 귀농귀촌 전입자는 총 210명으로 집계됐으며, 전출 인원은 72명에 그쳐 순유입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입 인원 1,427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안정적인 유입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귀농귀촌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와 50~60대가 고르게 분포돼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함께 유입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인구 구조 형성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귀농귀촌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최대 2년간 기본소득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이사정착비, 주택 수리 및 신축 지원, 소득 기반 지원 등의 정착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하며 귀농귀촌인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있다.

또한 임시거주지와 '귀농인의 집' 운영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도시민 유치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순창으로 귀농한 한 주민은 "기본소득 지원 덕분에 초기 생활비 부담이 줄어 정착을 결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농업을 준비하는 동안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춘향제, 안전한 먹거리·쾌적한 숙박 환경 제공 만전

남원시, 음식점·숙박업소 점검

남원시는 제96회 춘향제를 맞아 오는 23일부터 축제 종료일인 5월 6일까지 관내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제 현장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고, 식중독 등 각종 위생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반은 공무원과 감시원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업종별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식점의 경우 △식자재 소비기한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및 조리장 내 청결 관리 △위생모·위생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숙박업소는 △업소 내 신고증 및 숙박 요금 게시 △게시된 요금 준수 △객실과 공용 공간의 위생 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기타 공중위생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남원시는 이번 점검과 병행해 '음식물 재사용 금지 서약서 작성'과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의 외식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N장미축제' 향토음식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추진

임실군이 오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2026 임실N장미축제'의 성공적인 운영과 먹거리 수준 향상을 위해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섰다.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7일 농업기술센터 중회의실에서 축제 향토음식관 운영자 30명을 대상으로 '향토음식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축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결하고, 운영자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해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턴트로는 정정희 국제요리학원장이 참여하며, 임실읍을 비롯한 10개 읍·면 운영진들과 1:1 집중 상담 방식으로 진행되어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계절감에 맞는 차별화된 신메뉴 개발 △효율적인 식재료 관리 및 위생적인 조리 환경 조성 △향토음식관 운영 시 예상되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조언 등으로 진행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는 지난 20일 시청 23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남원시, 지역복지 역량 강화 '업무 연찬회' 가져

남원시는 지난 20일 시청 23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일선 현장에서 복지행정을 이끄는 팀장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현욱 주민복지과장은 인사말에서 "최일선 현장에서 시민들의 고통을 가장 먼저 살피고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복지팀장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팀장님들의 세심한 관찰과 열정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연찬회가 더 촘촘하고 따뜻한 남원형 복지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핵심 추진 전략 △읍면동별 중점 추진 업무 공유 △지역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2026년 신규 사업 안내 등이 다뤄졌다.

특히 이번 연찬회에서는 최근 읍면동에서 개입한 고난도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유하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과 민관 협력 모델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한 복지팀장은 "현장에서 마주하는 복합적인 문제들로 고민이 많았는데, 다른 읍면동의 사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해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라고 전했다.

박생희 희망복기지원팀장은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남원'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장내 기생충 질환 무료 검사 실시

순창군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간흡충증(간디스토마)을 포함한 12종의 장내 기생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순창군은 섬진강 유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장내 기생충 질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특히 간흡충 감염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30세 이상 주민은 오는 4월 3일까지 순창군 보건의료원과 각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검체용기(채변통)를 수령한 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비는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간흡충은 민물고기를 날로 섭취하거나 오염된 조리기구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으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장기간 방치할 경우 담도염, 담석증, 담관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장내 기생충 무료 검사는 매년 1회 실시되며, 관련 문의는 순창군 보건의료원 예방의약팀(063-650-5238, 5243) 또는 관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로 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오리엔테이션 열려

순창군가족센터는 지난 21일 가족센터 1층 작은도서관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오리엔테이션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에는 관내 주민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안내와 프로그램 소개, 이용자 요구도 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주민 간 돌봄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며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아이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장난감과 도서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어딜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툇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